

심장과 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새 생명의 답은 이 책에 있다.

## 화공약품 금지 외치는 한 한의사의 꿈



꾸준히 폐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면, 시리고, 저리고, 아픈 노년이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

인간 수명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생물학자들은 동물 대부분이 성장 기간의 6배 정도 산다는 점에 착안해 인간도 20세까지 성장한다고 볼 때, 120세 언저리를 수명의 한계로 본다. 실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도 122세다. 그 주인공인 프랑스 잔 칼망(Jeanne Calment) 할머니는 1875년 태어나 100세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로 건강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 120세는 고사하고 100세 이상 노인 인구도 전 세계 10만 명당 1명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각종 질환에 걸려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죽는다. 건강한 삶을 100세까지 살다가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이 좋은 죽음이지만, 실제로 10명 중 7명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앓다가 죽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세 이상 노인 33명을 찾아 그들 모두에게 건강한 100세를 살게 하는 것으로 원대한 꿈의 서막을 열고자 하는 한 남자가 있다. 33인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그 이후에는 작은 나라를 선택하여 그 나라 국민 평균 수명을 10년 늘리고, 중국에는 인류의 수명을 30년 늘리는 것이 인생의 꿈이라 말한다. Korean Medicine Doctor인 그의 이름은 서효석, 이 남자의 꿈을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의 꿈은 그저 희망 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꿈은 추상적이거나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다. 그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진실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원대한 꿈은 이미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 <First Stage of Man's Dream>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 왜 죽는가? 숨을 못 쉬어서다. 숨은 왜 못 쉬는가? 폐가 망가져서다. 그렇다면 폐는 왜 망가지는가? 구멍 나고, 가래 차고,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폐에 구멍이 나면 폐기종이요, 가래가 차면 기관지확장증, 굳어버리면 폐섬유화다. 이렇게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폐섬유화가 찾아와 폐를 반쯤 망가뜨린 어느 날 감기에 걸려 폐렴이라도 생긴다면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제까지 인류는 죽은 폐포는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살았다. 그러나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41년 연구의 산물인 '편강탕'으로 3만 명 이상의 폐 질환 환자를 치료하면서 죽은 폐포를 재생시키는 새로운 노하우를 찾아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심폐기능 강화를 통한 폐 세포의 부활로 돌연사와 중간사, 노사를 막는다면 누구나 건강한 100세에 이를 수 있다는 지론을 세웠고 "폐만 건강하면 죽지 않는다"는 새로운 생각으로 90세 이상 노인 33명으로 구성된 '편강 100세 탐험대'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편강 100세 탐험대는 제주도 서북기념관 옆에 '반노환중촌'을 짓는 것으로 시작된다. '반노환중촌'에 지어진 열두 채의 기와집에는 90세 이상 노인 33명이 산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신선처럼 단아하고 고상한 차림새다. 그들은 여름이면 밭을 갈고 가을이면 수확을 하는 자연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감기 한 번 없이 한 해 한 해를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에게 깊은 감명으로 다가올 것이다.

서 원장은 이를 '편강도원'이라 칭한다. 이는 꿈속 도원이 아니요, 실존 도원이다. 폐 기능 강화로 면역력의 베이스캠프인 편도가 튼튼해지면 작은 감기부터 중증 폐 질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 저절로 100세인이 탄생하게 되는데, 수많은 100세인과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편강도원'이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 무턱대고 무병장수를 쫓는 자는 실패하지만, 폐 건강을 얻은 자는 꿈쩍없이 무병장수한다. 건강 100세 시대는 폐 건강으로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서 원장은 '반노환중촌'의 33인 모두가 100세에 이르는 날, 세상을 향해 외칠 것이다.

"오늘부터 인간의 수명은 3자리 수다"

# Free from Chemical Medicine

Lecturer: Dr. Seo Hyo-seok, Director of Pyunkang Korean Medicine Hospital

활인의술(活人醫術).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 초청 강연 <2회>

Wednesday, November 12<sup>th</sup>, 2014    Venue: Diplomatic Center Building    Guests: Excellencies, International Media Rep



'Free From Chemical Medicine'을 외치던 a Korean Medicine Doctor 서효석은 그에 대한 해답으로 Medical Food를 제시한다.

## <Second Stage of Man's Dream>

서 원장의 꿈은 <편강 100세 탐험대>에서 멈추지 않는다. '반노환중춘' 편강도원이 성공을 거두면 심폐기능 강화를 통해 폐 세포를 살리는 서 원장의 새로운 이론은 세계인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이때 그는 인구 500만 명 이하의 국가를 선정해 그 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을 10년 늘리는 제2단계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다.

편강탕으로 폐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냄으로써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고쳐내 인생을 두 번 살게 하기 위한 편강의학의 궁극적 지향점을 향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다. 편강 100세 탐험대의 33인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했다면, 그 의술은 충분히 한 국가의 평균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장수국가 건설은 100년을 내다보는 대대적인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국민의 평균 수명을 10년 이상 늘리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이들 국가에 폐에 좋은 10여 가지의 약재를 황금비율로 조합해 제조하는 편강탕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다. 서 원장은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약재를 그 나라에서(삽입)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약재의 효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제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부지와 인프라를 갖추는 일은 국가가 담당하고 편강탕 제조를 위한 시스템과 노하우는 편강한의원이 제공하는 것이다.

폐에 좋은 10여가지의 약재를 황금 비율로 조합해 만들어낸 편강탕은 100% 생약 성분으로 만든 Medical Food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편강탕은 만병의 근원인 감기부터 막아낸다. 편강탕으로 튼튼해진 편도가 몸에 침입하는 감기 바이러스부터 잡아내는 것이다.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비대인 편도선이 튼튼해지면 면역 식별력이 탁월해져 각종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는 감기를 막는 것은 물론 비염과 천식을 예방하고, 호흡기 전반을 건강하게 만들어 무병장수의 길로 들어서는 근본 치료법이다.

이때 폐는 심장과 함께 건강해져 고혈압, 저혈압을 바로 잡는다. 또한, HDL-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은 높여주고, LDL-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은 낮춰서 혈관의 탄력을 회복한다. 혈관이 탄력성을 회복하면 관상동맥을 강화해 중풍을 예방한다. 이렇게 폐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면 독감을 확실히 막아내는 것은 물론 폐렴균은 얼씬도 할 수 없게 된다. 65세 이후 제1 사망 원인인 폐렴을 확실히 막아내면, 결국 사망률은 자꾸만 낮아져 평균 수명 10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기대수명이 20년 전에 비해 6살이나 늘어난 반면, 질병 발병률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살 돼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질병 발병률이 높아진 만큼 진료비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 원장은 2단계 프로젝트 시작 연도의 10년 후에는 진료비를 처음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수명은 늘리고 진료비는 낮추는, 국가와 국민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평균 수명 10년 연장은 단순히 생명유지의 기간을 늘리는 일이 아닌, 건강 수명을 늘리는 일이다.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고 튼튼한 국가 경쟁력을 기르는 숭고한 일이라는 점에 더 의미가 있다.

### <Third Stage of Man's Dream>

10년 수명 연장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는 역사를 바꾼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는 그 국가의 변화하는 다양한 모습을 지켜볼 것이며 수명 연장의 결과에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2단계의 결과가 성공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그의 꿈은 3단계로 이어진다. 그 꿈은 원대하다. 호흡기를 최상으로 보존하여 수많은 병의 악화를 막고 호전시켜 궁극에는 인류의 평균 수명 30년 증진과 함께 전 인류의 무병장수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원장은 먼저 G2(미국, 중국)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편강한 의원과 함께 인류의 수명을 30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해야 할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의학의 본고장인 미국과 한방의 원류인 중국은 차별화된 한의학의 우수성을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물론 G2뿐만 아니라 G20 등 다른 국가에도 문은 열려 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충분히 미룰 수는 있다.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죽음에게 '나중에 오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폐'이다. 서 원장은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설파하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꿈은 사람을 움직인다. 한 사람의 꿈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 꿈은 통계와 예측을 바꾸기도 한다. 역사의 위대한 사건들은 한 사람의 작은 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전 세계를 상대로 'Free From Chemical Medicine'을 외치던 a Korean Medicine Doctor 서효석은 오늘도 꿈을 끈다. 그리고 그는 Free from Chemical Medicine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Steroids Out! Medical Food is Real Medicine"

시리고, 저리고, 아픈 100세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전 인류가 한 세기를 너끈히 살아내고도 다음 세기를 새롭게 맞이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날이 머지않았다. 세계인 모두가 편강을 만나는 그 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전 인류에게 은혜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편강은 대한민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위한 것이다.



이제 편강은 대한민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위한 것이다.